

# 엄마 고용 증대는 아빠 가사분담이 관건

고용노동부, “맞벌이 부모 비중 낮음에 따라 남성의 가사분담률 낮아…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모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엄마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빠의 가사분담부터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모 비중이 낮으며, 이는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0-1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용상황을 보면, OECD 국가의 부모들은 약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

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 부모들의 고용형태는 ‘모두 전일제(41.9%)’가 가장 많고, 이어 ‘외벌이(30.8%)’, ‘전일제+시간제(16.6%)’ 순이었으며, 스웨덴, 덴마크처럼 전일제 맞벌이 비중이 높은 국가와 네덜란드처럼 전일제+시간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나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벌이(46.5%)’, ‘모두 전일제(20.6%)’, ‘전일제+시간제(8.8%)’ 부모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모 비중(29.4%)이 OECD 평균(58.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전일제 맞벌이 부모가 크게 증가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

모 비중이 낮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으나, 남성의 낮은 가사분담률(무급노동시간 비중)과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과 생활의 불균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모의 비중이 낮은 국가들은 남성의 가사분담률도 낮았는데, 우리나라도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16.5%로 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

장시간 근로와 여가시간 비중 측면에서도, 대체적으로 맞벌이 부모 비중이 낮은 국가들은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고 여가시간은 짧았다. 우리나라는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고, 여가시간(취미활동, 수면시간 등)은 OECD 평균보다 다소 적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일하는 환경이 여성 친화적이지 않아 대

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맞벌이보다는 남성 외벌이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일하는 엄마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와 더불어 장시간의 경직적인 근로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일·생활 균형(WLB, work & life balance)의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차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등이다.

/안재용 기자



## 전북투어패스 체험행사 실시

농협 도청지점… 오목대·향교·맛집 체험 등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은 지난 1일 지점 가족들과 함께 전북투어패스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 직원들과 가족들 25명이 참가해 오목대, 향교, 풍남동 골목길, 경기전 일원과 공용주차장 이용, 맛집 체험 등 다채롭고 의미있게 진행됐다.

체험활동에 참가한 직원들과 가족들은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투어

패스 카드의 편리성을 알게 됐고 문화해설사의 도움으로 관광지의 역사적인 의미까지 알 수 있게 돼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도내 주요관광지를 투어패스 카드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전국의 지인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전북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도금고 은행으로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내 농장 씨돼지 개량, 내가 직접 한다’

농진청, ‘돼지 능력검정원’ 인증시험과 취득 방법 소개

농촌진흥청은 종돈장(씨돼지 농장)에서 씨돼지 능력을 검정하는 ‘돼지 능력검정원’ 인증시험과 취득방법을 소개했다.

능력검정원은 씨돼지 능력 검정자료의 표준화,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으로, 축산법에 따라 가족개량종결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능력검정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순종 돼지를 생산하는 종돈장은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을 위해 검정기관

의 검정원이 농장을 방문하는 형태에서 최근에는 농장 소속직원이 직접 검정하는 자가 검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능력검정원 자격을 획득하면 이들이 검정한 자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농장검정자료와 같이 농장별 또는 국가단위 돼지개량을 위한 선발과 도태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씨돼지의 정확한 혈통관리와 검정자료 생산으로 능력이 우수한 씨돼지 선발의 기반이 마

련된다.

능력검정원을 취득하려면 농촌진흥청 교육훈련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교육(연 2회)을 받고, 한국종축개량협회 추천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최하는 인증시험평가를 거쳐야 한다.

교육내용은 돼지 혈통등록과 농장검정 방법, 돼지개량 원리와 방법, 초음파 측정 등 이론과 실습이며 2일간의 과정을 마쳐야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일정시험을 거쳐 갱신해야 한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돼지 능력검정원으로 인증된 검정원은 총 272명이며, 올 상반기에는 15명이 인증을 받았다.

돼지 능력검정원 인증시험에 대한 자세한 문안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족개량평가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가족개량평가과 김시동 과장은 “씨돼지의 정확한 검정자료 생산을 통해 효과적인 돼지 개량이 되도록 교육과 인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기술창업자 모집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갖춘 도내 3개 창업선도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예비 글로벌기술창업자를 찾아 나선다.

전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1일까지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북 25명, 전국 총 32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후속지원과 지난 4월 마감한 1차 모집에서 선정된 703명을 포함해, 총 1,206명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계

획이다. 올해 창업선도대학 모집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중심’과 일반 ‘아이디어 중심’으로 구분했다.

또한 그 중 기술창업자 육성 목표를 전체 창업자의 40%(400개 창업팀) 이상으로 상향 설정하고, 창업팀 구성과 투자유치 요건 등을 충족한 전문기술과제에 대해,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까지 사업화자금을 확대지원해 교수,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신입 김남혁 지사장 부임

주택금융공사 신입 전북지사장에 김남혁 본사 전 주택금융연구원 통계분석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지사장은 “올해 미국이 1~2차례 금리를 인상 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월세에 힘들어하는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고, 도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경진원, 청렴의식 강화 ‘새출발 전진대회’ 개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일 공공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2회 새출발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공직자의 청렴과 청탁금지법 실무’를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OX 퀴즈를 진행하는 등 실무에서 적용할 사항을 위주로 교육이 이뤄져 직원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또한 청렴 서약식에서는 각 직급별 대표가 부당한 지시나 압력, 알선·청

탁, 금품·향음 수수, 예산의 사적 사용 등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의하고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결의했다.

경진원은 해당 교육 외에도 ‘청렴성 제고 종합방안’을 두어 전범위 내부 감사 실시, 부패행위 처벌기준 강화(One-strike Out제도), 부조리 신고센터 내실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중기청,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위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의의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의 제재 강화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

연구비리 행위에는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행위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있다.

또한 정당한 절차 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 유출을 할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서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의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안재용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